

임실군 정주활력센터 착공 지속 가능한 농업 도시 만든다

베이커리·레스토랑·목욕탕·영화관 등 조성... 주민 윈스톱 편의시설 기대

임실군 임실읍에 주민들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지하1층, 지상8층의 대규모 정주활력센터가 착공, 임실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임실읍 정주활력센터가 지어지면 도시 못지 않은 주민들의 윈스톱 편의시설 혜택을 물론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고, 인근 산간 활성화, 인구유입 등 지방소멸을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군은 임실읍 이도리 일원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거점시설인 '임실 정주활력센터 건립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착공식은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장종민 군의회 의장, 박정규 도의원, 관계 기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사업의 본격 추진을 함께 축하했으며, 안전 기원제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임실 정주활력센터는 임실읍 이도리 732-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747㎡,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347억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임실군의 중점 전략사업이다.

정주활력센터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이 집약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1층에는 푸드복합문화센터와 베이커리 등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되고, 2~3층에는 남·여 목욕탕과 레스토랑, 대·소회의실이 들어서 주민 복지 및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다.



임실군은 '임실 정주활력센터 건립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4층은 사무공간과 회의실을 배치해 행정과 민간이 연계되는 협력 공간으로 활용되며, 5층에는 지식정보센터와 주니어직업체험관, 주니어놀이터를 조성해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한다.

6층에는 실내클라이밍장 등 체육시설을, 7층에는 영화관을 조성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임실 정주활력센터는 단일 기능 중심의 공공시설이 아닌, 일상·문화·복지·여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생활 거점으로 조성돼 주민 이용도와 체감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실군의 전략적 투자사업으로, 단순한 건축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싶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과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은 물론,

인근 35사단 군 장병 등 생활 인구의 여가와 문화 수요를 아우르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주활력센터가 임실읍 원도심에 조성됨에 따라 침체된 도시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다양한 생활·문화 시설 이용으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인근 산간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윤러, 군은 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역 인력과 민간 참여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해 장기적인 지역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정주활력센터는 임실군이 직면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실현 사업"이라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과 미래세대가 다시 찾는 임실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향후 운영까지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형 농업 전략·중장기 계획 지속 추진

남원시가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남원형 농업 전략과 중장기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농 유입,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을 핵심 축으로 삼아 약 900억 원 규모의 농업 예산을 투입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농업환경 5개 분야에서 3,500여 건의 농작을 진행했다. 전문 분석장비 도입으로 분석 정확도와 처리 효율도 크게 높아졌으며, 2026년부터는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경력관 채용과 신규 분석기기 도입을 추진하며,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지역농산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생물배양센터를 통해 농업인과 축산업인에게 주 4회, 총 77회만 남원형 스마트팜 확대 보급 사업으로 27농가를 지원했으며, 원에 분야 신기술 지원은 5개소에서 추진됐다.

남원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4개소(이백, 인월, 사매, 금지)를 운영중이며, 농기계 구입 어려움으로 주저하는 농가들을 위해 지속적인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농업·축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 소양과 전문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명품농업대학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 6억 원을 투입해 220명을 지원했으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으로 25명에게 63억 원을 지원했으며, 체재형 실습농장과 귀농인의 집 운영으로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사업으로 1,012농가에 2억 원을 지원했으며, 과수 냉해 예방과 이상기상 대응 기술 시범도 추진했으며, 남원시는 백향과를 대표 품목으로 육성하며 가공식품 개발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도전에 맞서 지속 가능한 농업 도시로의 전환을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홍국쌀 활용 신제품 출시로 브랜드 가치 확대 나서

순창군이 지역 대표 브랜드 제품인 순창홍국쌀을 앞세워 소비자 시장과 산업용 소재 시장에서 잇따른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추가 신제품을 선보이며 브랜드 가치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순창쌀 소비 촉진을 목표로 순창홍국쌀을 개발한 뒤, 이를 활용한 기능성 가공식품을 출시할 채널을 선보여 의미 있는 매출 실적과 함께 브랜드 가치도 제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진흥원은 순창홍국쌀을 순창을 대표하는 전라 건강식품 개발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발효곡물차 '진홍티'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와 함께 순창홍국쌀을 활용한 기능성 발효음료 '밸런스미도'도 선보였다.

이번에 개발된 신제품들은 내년 1월부터 네이비,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주소정책업무 유공 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순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주소정책업무 유공 기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보수 4천만 원을 확보했다.

22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가리는 제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주소 부여 △사무물주소 관리 △국가지점번호 운영 △주소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보수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순창군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노력을 지속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 가져

남원시는 22일, 시민과 행정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사항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2026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 참여 확대,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상 속 소통강화 등 여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운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오수지구대, 찾아가는 보이스포싱 예방 홍보

임실경찰서(서장 류관송) 오수지구대는 2025년 연말연시 특별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보이스포싱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관내 마을회관, 행복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들 대상으로 최신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정부기관·택배사 사칭, 가족·지인 사칭 등 다양한 보이스포싱 범죄 수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황별 대처방안을 자세하게 안내했다.

또한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거나, 실수로 악성앱 설치 링크를 클릭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112로 신고하고 즉시 지구대로 방문하여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섭 오수지구대장은 "조직화·전문화된 보이스포싱 범죄가 농촌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어르신들이 이를 인지하여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남원시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기초에 발맞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남원시는 '11대 가까이 돌봄, 함께 파어나는 남원'이라는 비전으로 2026년도 통합돌봄 사업비(인원비 제외) 예산을 6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2025년에 구축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병원동행 서비스를 기반으로 방문운동재활, 주거환경개선, 식사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강화해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실 우려가 있는 돌봄 대상자에게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해 영양 관리를 강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들의 밑반찬과 식재료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형태의 식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병원동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으로 자택에서 출발해 병원진료, 검사, 약처방, 귀가까지 병원이용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돌봄 대상자의 가정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돌봄 대상자가 가정에서도 건강하게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운동 지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지원 대상자 중 70세 이상 노인인구 장애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민의 인식개선, 유관기관과의 견고한 협조 체계를 다져 시민들이 체감하고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함께 발굴하고 대상자 욕구에 기반한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의료-돌봄-복지-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남원형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